

■ 주간 증시 포커스

배당투자·주주가치 환원 관심 증폭

기관·외국인 지속 순매수하는

성장성 높은 종목에 투자 바람직

삼성전자의 배당확대와 한중간 외교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며 코스피지수는 2550선을 돌파해 최고가 행진이 이어졌고 코스닥지수도 상승에 동참하며 700선을 회복하였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업종과 지주사의 상승폭이 컸고 제약바이오, 중국관련주, 게임주 등 업종별 순환매도 이어졌다. 외국인은 주초부터 반도체중심으로 대형주를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고 기관은 증권사(금융투자자로 분류)에서 인덱스펀드(ETF 등)를 중심으로 바스켓 매수가 이어졌지만 주 초반 국가단체(우정사업부)의 프로그램순매도가 강하게 출회되며 주간기준 954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은 화장품과 제약바이오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어 상승탄력은 약해지고 있다.

코스피지수 상승속에서도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주간 1만 7422계약(현물환산 약 2조 9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선물시장에서 순매도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수 상승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선물시장의 성격상 포지션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최근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을 비롯한 EM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완화와 중국관계개선으로 원화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원화약세 전환을 대비한 외국인의 현물시장 헷지 차원으로 생각된다. 오는 9일 읍선만기일 수급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중앙은행(Fed) 연준의장에 제롬파월 Fed이사를 지명했다. 지난주 언급하였듯이 제롬파월 신임 의장은 엘렌의장과 같이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며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시장친화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된 12월과 2018년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이 Fed의 자산축소를 어떻게 이끌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매년 10조원(시총 400조 기준 배당투자수익률 연 2.5%) 규모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3년간 최대 8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주회사 및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한국형 스튜어디스코드(연기금 및 자산 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지침)가 도입되고 내년초 국민연금에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어 2018년에는 배당투자 및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업은 올해 배당락이 12월 28일이다. 배당투자에 적합한 시기와 종목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투자는 굳이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며 배당락은 적으면서 배당이 많은 종목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배당투자는 단순히 매년 고배당주를 찾아 투자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배당실적을 통해 안정적 사업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강한 배당성향 및 주주가치향상 신호를 통해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필자가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대표주가 배당투자 종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농촌경제연구원 11월 전망

사과·배·감귤·단감 출하량 감소

배추·무 등은 생산량 크게 늘어

한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과일의 ‘몸값’이 이달 들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감장철을 앞둔 시점에서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사과와 배, 감귤, 단감 등 주요과일의 11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과는 올해 생산량이 적은데다 우박과 탄저

병으로 단수가 줄어드는 등 지난해에 비해 출하량이 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1월 사과(후지·10kg)의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2만3300원)보다 비싼 2만5000~2만8000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대로 생산량이 많았던 배의 경우 농가들이 내년 설명절 성수기 출하를 대비해 저장해 놓으려는 의향이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할 분위기다. 여기에 감장철 수요가 증가하면서 15kg 기준 예상 도매가는 전년(2만6100원)보다 오른 2만7000~3만원이다.

생육기에 가뭄을 겪었던 단감과 지난달 초 잦은 비와 강풍에 시달렸던 감귤도 생산량과 출하량이 줄면서 몸값을 띄우고 있다.

올해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

해 지난해보다 7% 줄어든 12만6000t으로, 이달 평균 예상 도매가는 10kg 기준 2만2000~2만5000원이다.

감귤 역시 내년 1~2월 가격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11% 상당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출하시기도 늦어질 수 있는 탓에 11월 노지감귤 1kg당 예상 도매가는 전년(1340원)보다 높은 1400~1600원을 기록했다.

배추와 무 등 주요 엽근채소는 본격적인 감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평년보다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장배추로 쓰이는 가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0%, 평년 대비 3% 많은 14만 7000t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1월 배추 10kg당 도매가는 지난해 7960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3500원 내외로 예고된 상태다. 12월에도 해당지역 가을·겨울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역시 낮은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가을무 생산량이 전년보다 28%가 증가한 51만3000t으로 추정되면서 도매가가 18kg당 5500원 내외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450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당근 역시 이달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30% 늘면서 20kg당 도매가가 전년 6만3750원보다 현저히 낮은 2만5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 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

2017. 11. 3(금) 전남농협



지난 3일 이흥목 농협 전남지역본부장과 임직원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3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농협은 이흥목 본부장의 서명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10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남지역 모든 농협 점포에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농협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전국 농협 대의원조합장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 지난 2일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 명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 규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등이다.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앙회에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를 구성, 농업단체·소비자단체·학계 등 각계각층과 함께 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 운동 등을 집중 전개해겠다는 입장이다.

이흥목 본부장은 “지난 30년간 농업·농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 헌법은 농업의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서명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017 쌀 직불금·밭 직불금

농식품부, 오늘부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2017년도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 예산은 총 1조 468억원이다. 직불금은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직불금별로 중복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로 직불금을 받는 인원은 111만4000명이고, 1인당 94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변동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직불금 지급 시기를 현재 11월 초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낙지 자원 늘리자”

어린 낙지 2만5000마리 방류

갯벌의 고소득 품종인 낙지 자원을 늘리기 위해 어린 낙지 2만5000마리를 전남 해역에 방류한다.

5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에 따르면 낙지 자원 증강과 건강한 갯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신안군 장산면 오음 해역에 어린 낙지 5000마리를 방류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앞으로 도내 해역에 2만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낙지 주산지는 전남 갯벌이다. 지난해 전국 낙지 생산량(6798t)의 58.2%인 3958t을 전남에서 생산했다.

그러나 자원 감소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국내 생산량의 6배가 웃도는 4만3660t을 수입하는 실정이어서 자원 조성·관리가 절실하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낙지는 지난 4~6월 어미 낙지 1541마리를 확보해 알을 받아 부화시킨 것으로, 크기 4~5cm 무게 0.2g이다. 어린 낙지는 방류 즉시 갯벌에 잠입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고, 방류해역에 정착해 1년 만에 어미로 성장하는 특성이 있어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다고 해양수산과학원은 설명했다.

최연수 원장은 “전남 대표 수산물이자 갯벌의 고소득 효자품종인 낙지 자원을 늘려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갯벌 생태계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4백

직매 010-6670-9800

수기동 상가 매매

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

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

보 1천 월 60만

시세가 1억 5천
매가 9천7백 (용5천)

직매 010-6670-9800

경매 (주)대신경매

북구 용전동 (냉동창고)
토지 700평 건물 500평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4천

1) 서구 풍암동 아파트 지하상가
전용 50평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2) 서구 벽진동 (주택)
토지 111평 건물 18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2억2천

3) 북구 문충동 모야A,P,T (33평)
감정가 1억9천5백 → 최저가 1억3천6백

4) 광산구 신창동 부영A,P,T (33평)
감정가 2억3백 → 최저가 1억4천2백

5) 광산구 월계동 (침단지구 9층중 2층상가)
토지 23평 전용 86평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8천

6) 장성군 북일면 (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재활 요양병원
감정가 32억 → 최저가 23억

010-7384-7800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